



Before

정읍시가 올해 재해예방 하천정비 사업에 국비 등 95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하천 정비 전 후의 모습.



After

# 재해예방·농업시설 현대화·도로정비 주력

정읍시가 2016년 도로망 및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올해 건설 분야에 270억을 투자해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편사항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점검해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투입 규모별로 보면 ▲하천정비 9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66억원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56억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28억원 ▲도로정비 25억원이다.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에 95억 투입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정비 사업에 95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하천정비에 나선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구간인 산외면 평사리천 등 지방하천(7.8km) 6개소 정비 ▶이평면 오금 소하천 등 소하천(8.3km구간) 15개소 정비 ▶지방하천 6개소 14.0km구간의 하천기 본계획 수립 ▶재방범람 위험이 있는 50개 하천 30km 구간의 하도준설 등이다.

▲520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박차

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마을 진입로 안길과 모정 정비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20개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월 말까지 조기 착공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꾀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마을 진입로 정비 312개소 39억8천만원 ▶배수시설 정비 156개소, 19억8천만원 ▶모정 등 편의시설 정비 52개소 6억8천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재해위험구간 평사리천 정비 등 체계적 하천정비에 95억 투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추진 농업인 경작활동 편의 주력

군·농어촌 도로망 확충 도로정비로 교통환경 개선

지 시설직 공무원 15명으로 합동설계단을 자체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절감된 설계 용역비 3억원은 주민 편의증진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영농철 이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 영농편의를 제공한다.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56억원 투입 본격 추진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경작활동 편의에도 주력한다. 시는 이를 위해 56억원을 투입해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30억원을 들여 25km의 기계화 경

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15억원을 투입해 용배수로(2.7km) 정비에 나서며 51개소의 농로(7.3km) 포장에 9억원을 투자한다.

▲군·농어촌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도모  
시는 또 28억원을 투입해 군·농어촌도로 14개 노선 2.8km에 대한 확·포장에 나선다. 군도 10개 노선 2.0km와 농어촌도로 4개 노선 0.8km를 실시설계용역 종료로 연말 완료 예정이다.

군도확포장사업은 ▶칠석~산성선(군도5호) ▶마태~입점선(군도11호) ▶봉양~용정선(군도 1호) ▶고부~흥덕선(군도 3호) ▶두전~봉석선(군도20호)▶신영~해정선(군도 3호) ▶대산~상산선(군도12호) ▶육리~상서선(군도20호) ▶주산~매계선(군도13호) ▶신천~화룡선(군도 4호)이다.

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는 생죽선(고부 203호)과 서재선(태인102호), 소학선(갑곡106호), 주산선(고부104호)이 추진된다.

▲도로 정비 25억 투입,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소파와 노면 요철 정비 등 도로개선 사업에 25억을 투입한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2억원을 들여 덕천제야마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나서고 교통이 혼잡한 농소동 도매시장 오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4억원)을 추진한다.

또 재설작업과 동결응해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물고임 지구 정비 사업)과 노후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20개소)에 각각 4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1억2,000만원을 들여 농흥지하차도~정읍소방서 간 인도 설치와 함께 덕천면 인도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김 시장은 "올해 추진되는 각종 건설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받은 물론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과 극지성 호우가 빈번한 만큼 체계적인 기반시설과 하천정비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도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해 재해 없는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Before

군도확포장사업을 위해 추진된 고부~흥덕선의 전 후 모습.



After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